

numbers 제 69호



주요 내용

2020. 10.30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신앙생활/인식 변화]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증가세!
2. 1)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2)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증가세!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요 사회적 주체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한국교회를 들 수 있다. 기독교인이 절대 가치로 생각했던 대면 예배가 중단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외의 모임은 거의 전면 중지되었다. 이는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여기에 일부 교회의 방역 일탈로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면서 각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배당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야 하는데 교인들이 몰려 들어서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섞인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막상 대면 예배를 재개하자 기대와 달리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준비한 좌석이 차지도 않는 현실을 경험하였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교회출석자를 대상으로 4월 초와 7월 중순에 동일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예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13%에서 18%로 증가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의 신앙 의식과 신앙활동 내지 신앙적 습관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교회와 각 기관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과연 그 이전의 모습을 교회가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 [넘버즈] 69호에서는 코로나19 초기와 그 이후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개신교인들의 의식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다루었다. 이 분석이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에게 코로나19의 변화되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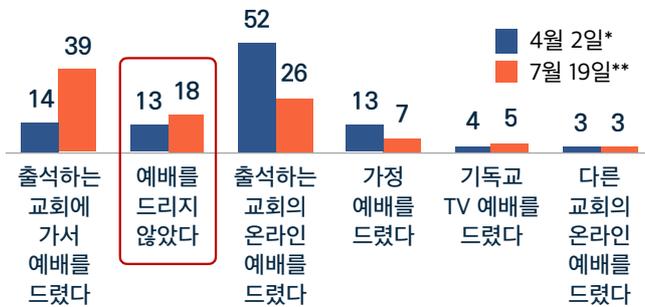
1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증가

-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일예배 드린 형태에 대해 추적 조사한 결과, 주일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이 4월 13%에서 7월 18%로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주일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은 40대 이하 젊은층, 직분 없는 성도, 신앙이 약한 기독교 입문층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 4월 조사 때는 코로나19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때였고, 7월 조사 때는 4월말부터 이어진 대면 예배 재개 이후의 시점이어서, 출석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린 비율은 4월 14%, 7월 39%로 대폭 올랐으며, 반면 온라인 예배 비율은 52%에서 26%로 대폭 낮아짐

[그림] 지난 주일예배 드린 형태(교회 출석자, 상위 6위) (%)



[그림] 주일예배 안 드린 자 특징 (7월 조사)

- 40대 이하 젊은 층
- 직분 없는 성도
- 신앙이 낮은 기독교 입문층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자료출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 안 가겠다’ 2%(4월) → 6%(7월)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종식 후 본인의 예배 형태 예상을 질문하였는데,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서 출석하여 예배 드릴 것 같다’가 76%로 ‘4월’ 조사 85%보다 9%포인트 줄어들었고, 반면 ‘필요한 경우 온라인/방송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4월’ 13%에서 ‘7월’ 17%로 증가하였음
- 한편, 아예 교회를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4월’ 2%에서 ‘7월’ 6%로 무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본인의 예배 형태 예상 (%)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자료출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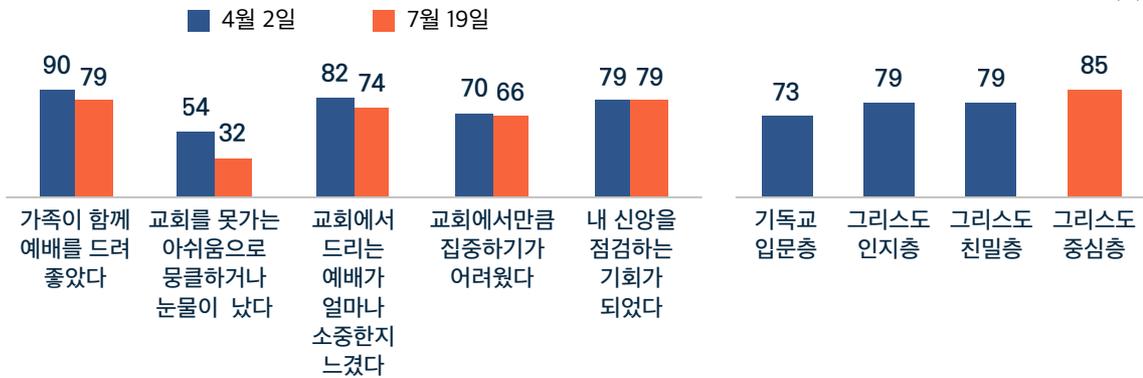


온라인/방송/가정 예배 시 소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 좋았다’ 79%

- 집에서 온라인/방송/가정 예배 드린 자에게 각 속성별로 소감을 질문하였는데,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 좋았다’는 응답이 79%로 ‘4월’ 90%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이 함께 드려서 좋았다는 평가는 교회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뽀뽀이 흠어져 예배 드리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온라인/방송/가정 예배 시 소감(‘그렇다’ 응답률)

(%) [그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그렇다’ 응답률, 7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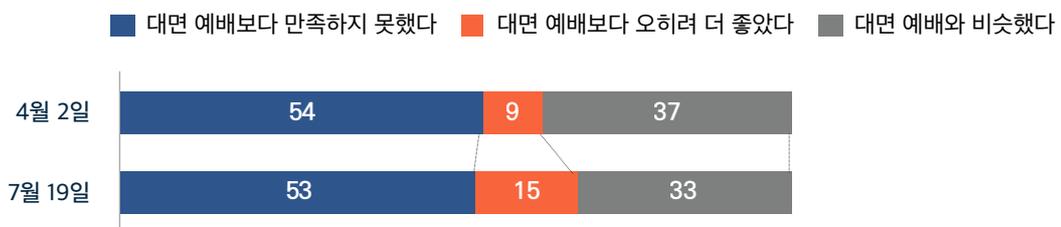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 온라인/방송 예배 선호도 증가 추세

- 온라인/방송 예배 드린 자에게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와 비교하면 어떤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월등하게 높은 가운데,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응답이 ‘4월’ 9%에서 ‘7월’ 15%로 꽤 상승한 점이 주목됨

[그림] 온라인/방송/가정 예배와 대면 예배 비교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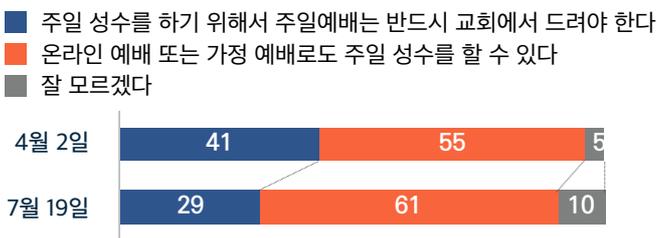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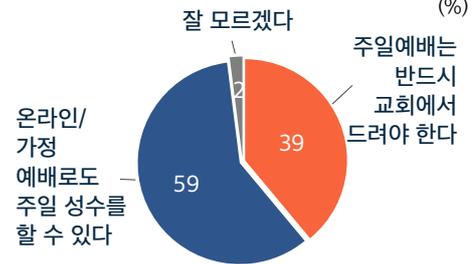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 3개월 사이 크게 낮아져

- 주일 성수 인식과 관련,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3개월 사이 더 낮아진(41% → 29%) 반면, ‘온라인/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더 높아짐(55% → 61%)
- 교회 종직자들도 주일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39%)보다는 온라인/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인식(59%)이 훨씬 높음

[그림]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전체 개신교인) (%)



[그림]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종직자, 7월 조사)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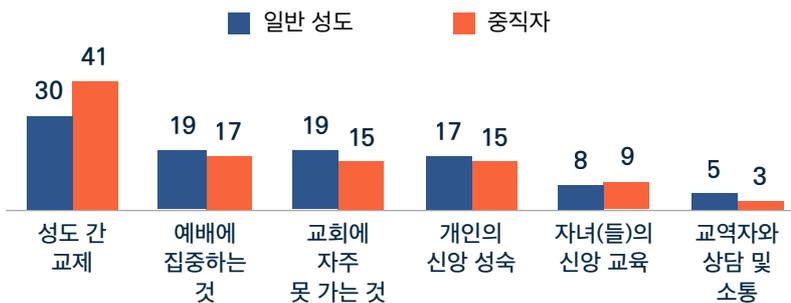
4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관련 어려운 점, 1위 '성도 간 교제'

- 교회 출석자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성도 간의 교제'가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 19%,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19%, '개인의 신앙생활' 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회 성도 간 교제(코이노니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특히 종직자의 경우 '성도 간 교제' 응답률이 41%나 돼, 상대적으로 종직자 층에서 성도 간 교제에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앙생활 관련 어려운 점(교회 출석자 기준)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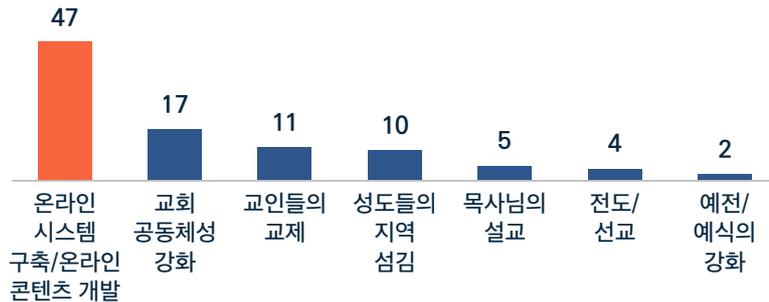
5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온라인' 이 압도적 1위

-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온라인 시스템 구축/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4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성 강화' 17%, '교인들의 교제' 11%, '성도들의 지역 섬김'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 그러나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목회 중점 사항으로 '공동체성/교제'를 우선 순위로 꼽아 성도들과 인식 차이를 보임

- 예정통합교단 소속 목회자 대상 조사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를 41%로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설교력 강화' 30%, '예식/예전/모이는 예배 강화' 25%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 예배/온라인 콘텐츠 강화'는 18%로 6위권으로 응답함

[그림] 코로나19 종식 이후 목회 중점 사항(예정통합 교단 목회자, 1+2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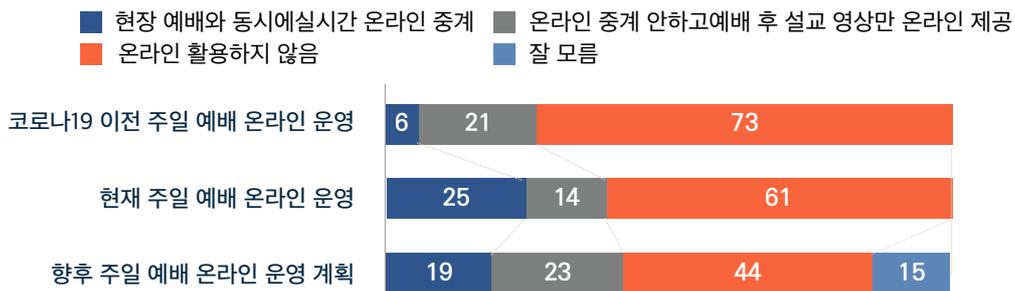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통합총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020.06.15. (예정통합 소속 교회 당회장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 또한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운영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목회자들에게 코로나19 종식 이후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질문한 결과, '대면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 19%, '온라인 중계 안하고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온라인 제공' 23%, '온라인 활용하지 않겠다' 44%, '잘 모르겠다' 15% 등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목회자까지 감안, 절반 이상의 목회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주일예배 시 온라인 운영 여부(예장통합 교단 목회자) (%)



*자료 출처 : 예장통합총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020.06.15.(예장통합 소속 교회 당회장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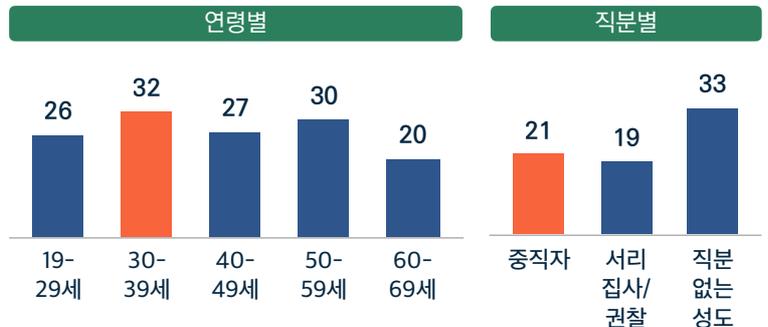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25%, '가나안 성도' 36%

-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100% 온라인 교회>를 다닐 의향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교회 출석자' 중의 25%, '가나안 성도'의 36%가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의향률을 보이며, 현재 교회 종직자 중에서도 5명 중 1명 정도가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을 보임

[그림]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률 ('그렇다' 비율) (%)



[그림]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그렇다', 계층별)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7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관련 관심이 증가한 것, '다양한 목사님 설교' 1위

-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과 관련 관심이 증가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25%로 1위였고, 다음으로 '성경공부/제자양육과 같은 교육' 21%, '찬양' 18% 등의 순임
- 이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이 인터넷/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접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임

[그림]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 (중복 응답) (%)



[그림]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응답률, 직분별)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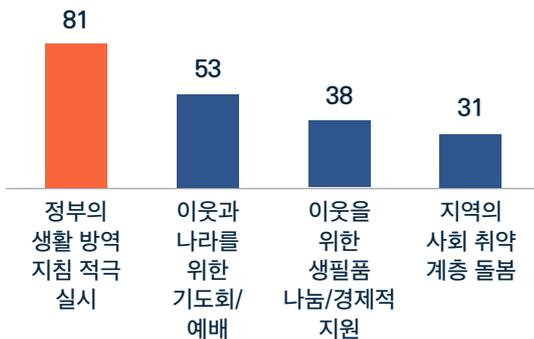
8



코로나19 상황 중 교회의 30% 이상, 이웃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회 취약계층 돌봄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질문했는데,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 적극 실시' 81%,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예배' 53%, '이웃을 위한 생필품 나눔/경제적 지원' 38%, '지역의 사회 취약계층 돌봄'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물품이나 모금으로 지원한 경우가 3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 교회가 한 사회적 행동(교회 출석자, 중복 응답)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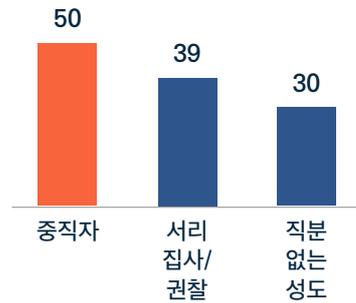
종직자 2명 중 1명, 정부/지자체의 종교 집회 자제 권고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인식

-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집회 자제 등의 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개신교인의 3명 중 1명 이상(36%)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교회의 종직자 층에서는 절반(50%)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정부/지자체의 종교집회 자제 권고에 대한 의견 ** (%)



[그림] 정부/지자체의 종교 집회 자제 권고에 대한 의견('종교의 자유 침해다' 응답률, 직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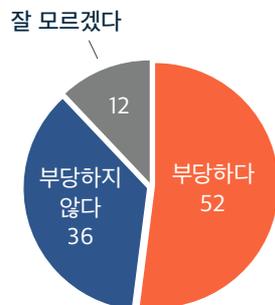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4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긍정(매우+약간)과 부정(매우+별로)을 각각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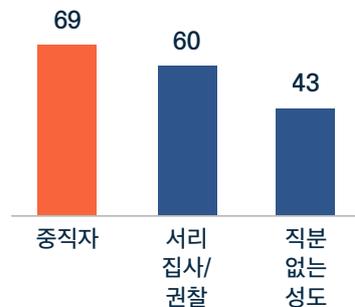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 중 언론/여론의 개신교 비판, '부당하다' - 개신교인 전체 52%, 종직자 : 69%

- 코로나19 상황 중 언론과 여론의 개신교 비판이 상당했는데, 이와 관련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52%)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교회 종직자 층은 무려 69%로 10명 중 7명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어, 일반인들의 인식과 대조를 보임

[그림] 코로나19 상황 중 언론/여론의 개신교 비판에 대한 의견** (%)



[그림] 코로나19 상황 중 언론/여론의 개신교 비판에 대한 의견 **('부당하다' 의견, 직분별) (%)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4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긍정(매우+약간)과 부정(매우+별로)을 각각 합한 수치임



시사점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 의식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코로나19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신앙 의식과 생활 실태에 대한 2차례의 조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주일 대면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에 가서 직접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분석하면 2가지 경우가 발견되는데, 첫째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교회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 목회 현장에서는 2가지로 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다.

첫째는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교회 출석률을 떨어뜨리므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는 게 낫다는 전략이다. 온라인 예배가 없어야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유지되고 신앙이 발전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나온 전략이다.

둘째는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 길들여진 교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목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개인주의, 1인체제 트렌드 하에서 교회에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만약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해 교회에서 아예 문을 닫는 결과가 되므로 온라인 활동을 유지 내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분명한 것은 시대 트렌드는 앞서서의 두 번째 전략과 맞물리고 있어, 첫 번째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완적 기능으로 두 번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 (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서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고 변화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처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곧 닥쳐온다. 현상에 대해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것은 매서운 변화 앞에서는 너무 안이하다.

이 매서운 변화 앞에서 교회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 불투명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고민과 논의를 개 교회 차원을 넘어 신학교, 총회, 연합기관 등 여러 단위에서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체 방향과 아울러 각 교회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구상, 목회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19 국제 인식 조사'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2.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미국인의 아시아 국가 인식 조사'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World Economy Forum)이 글로벌 조사 전문 기관인 입소스를 통해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인의 대부분(86%)이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함
-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와 '콜롬비아'가 94%로 긍정률이 가장 높았는데, 정권 교체 요구가 높은 나라에서는 변화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국가에서는 낮게 나타남
- 한국은 73%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낮으나, 그래도 4명 중 3명 가량의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 공정한 세상으로 더 크게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바란다' 긍정 응답률('매우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Nearly 9 in 10 People Globally Want a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World Post COVID-19', 2020. 10.16 (전 세계 28개국, 28-74세 남녀, 21,104명, 온라인 조사, 2020.08.21.-09.04)

● 전 세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 내 자신의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큰 변화를 원해!

- 개인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도 세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이 '내 자신의 삶이 코로나19 이전 복귀보다 크게 변화하길 원한다'고 응답함
- 국가별로 특히 '멕시코'가 89%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와 '독일'이 51%로 가장 낮았고, '한국'은 56%로 대체로 타국가보다 자신의 변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그림] '내 자신의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큰 변화를 원한다' 긍정 응답률 ('매우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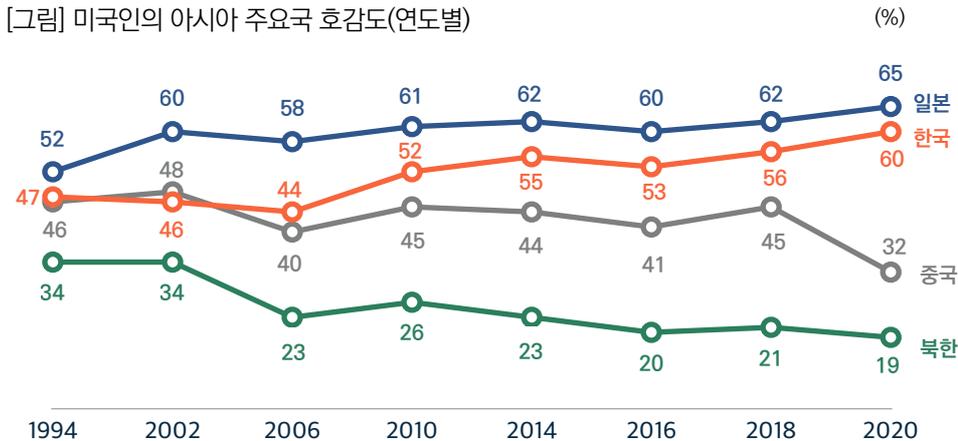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Nearly 9 in 10 People Globally Want a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World Post COVID-19', 2020. 10.16 (전 세계 28개국, 28-74세 남녀, 21,104명, 온라인 조사, 2020.08.21.-09.04)

2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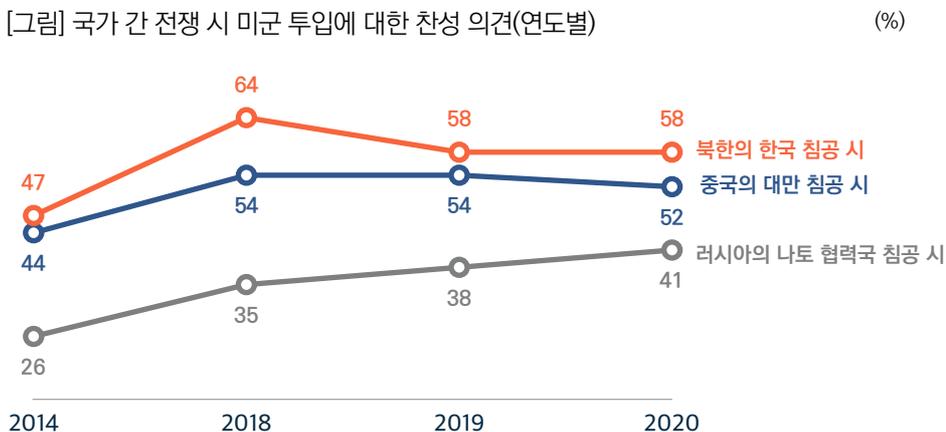
-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미국이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관한 호감도를 조사하였는데, '한국'은 100점 만점 중 평균 60점으로 나타나 해당 기관의 역대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대처와 BTS 등 K-POP, 넷플릭스 등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기생충' 인기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음
-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65점이었으며, '중국'은 32점, '북한'은 19점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on South Korea Despite Trump's Views on Alliance', 2020.10.19.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 거주 18세 이상 남녀, 2,111명, 온라인 조사, 2020.07.02.-07.19)

● 미국인의 58%,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 병력 투입' 찬성!

- 세계 국가 간 전쟁 시, 미군 병력 투입 정당성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질문한 결과, '북한이 한국 침공 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8%로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한국 전쟁 발발시 미군의 참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는 52%, '러시아의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같은 나토 협력국 침공 시'에는 41%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미국인은 한국과 맺은 동맹 관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 출처 :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on South Korea Despite Trump's Views on Alliance', 2020.10.19.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 거주 18세 이상 남녀, 2,111명, 온라인 조사, 2020.07.02.-07.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
9

[\[코로나19\]18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마스크 착용 행태 등\)](#)

한국리서치여론속여론_2020.10.27.

[코로나의 역설...감기·독감 환자 절반 줄고, 식중독은 1/3 감소](#)

동아일보_2020.10.28.

사
회
일
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8호 \(2020년 10월 4주\) - 국내 5개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

전국지표조사_2020.10.25.

[은퇴자의 삶 : "은퇴하는 순간 다 끊겨"..60% "생활비 마련 어려워"](#)

SBS_2020.10.23.

[청소년의 혐오표현 실태 ...아이들 입에서 이런 거친 말이](#)

매일경제_2020.10.25.

[청소년 미디어 사용 시간 늘면서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폭력 경험 증가](#)

이데일리_2020.10.29.

[자살시도자 통계 - 사기·실직·이혼·우울증](#)

중앙일보_2020.10.24.

경
제
및
국
제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근접](#)

매일경제_2020.10.28.

[가수 '상위 1%' 63명 연소득 34억원...1%가 전체소득 53% 차지](#)

연합뉴스_2020.10.26.

[직장인 절반 이상, 올해 주식투자 했다. 1위는 삼성전자?](#)

조선일보_2020.10.28.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 "부정적 인식 65%"](#)

연합뉴스_2020.10.28.

큐
레
이
션

[자살하는 청소년, 자해하는 청소년](#)

중앙일보_2020.10.24.

[\[새로운 인생 신\(新\)중년\] 50세 이후 세대의 삶](#)

중앙시사매거진_2019.12.16.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6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신규후원자 | (재)기독교선교햇불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목협), 햇불회